

2023-2학기 글말교실 감상문

국민대학교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20202822 윤지예

4학년 2학기가 되고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대학 수업을 찾다가 글말교실이 생각났다. 매해 '나의 말하기 실력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글말교실이 가장 적합한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점점 해가 지나면서 대인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글말교실 3회차 오정근 교수님의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 글말특강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가장 인상 깊었다.

나는 항상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다면 무엇이 잘 맞길래 그런 걸까, 관계가 좋다는 건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인가, 상대 마음을 얻는 게 쉬울지 내 마음을 주는 게 쉬울까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더욱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 글말교실이 마음에 와닿았다. 교수님께서서는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며, 내가 마음을 먼저 주고, 내가 마음을 주고 있던 걸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해주셨다. 나는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가는 가까운 사람이 가지고 싶었다. 그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주고, 예의, 매너, 호감, 존중 등이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다. 감정표현을 잘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면 자연스럽게 연애든 대인관계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셨다.

나는 친구와 싸우게 되면 '내가 이 친구와 맞지 않는 건가?'라는 고민을 해왔었는데, 서로 접촉하는 두 물체는 마찰을 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란걸 다시금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상대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자신 있게 말하기 수업에서 교수님을 처음 만나 뵈었는데, 그때는 발표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말하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연말이라 주변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 글말교실 주제가 알맞아서 나에게 매우 좋았다. 지금 원하는 일이 절실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고, 자신에게 성실하면 나의 삶에 충실해질 수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 와닿는다.

글말교실의 온라인으로 들었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특강으로 한 번은 꼭 듣고 싶다. 나중에는 오프라인 글말교실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학기에 글말교실 수업을 꽤 많이 들었는데, 3회차 강의를 가장 인상 깊었고, 앞으로도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 여러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직장에 다니면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이 생길지 아직 상상이 잘 가지 않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